

# 국내 대학 3곳 중 1곳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도 제한

(116개 대학)

##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확정

역량강화·재정지원제한 등  
7~35% 정원 감축 권고  
29개교 이의신청... 기각

국내 대학의 34%에 해당하는 116개 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 권고가 확정돼 내년 신·편입생부터 적용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이의신청 대상 86개 대학 중 29개교의 이의신청(8월 24일~28일 접수)에 대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 문제가 없어 최종 결과로

확정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3일 밝혔다. 이의신청 학교는 일반대학 19교, 전문대학 10교였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학령인구 지속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이 확정돼 올해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I·II)으로 구분 발표됐다.

진단 대상 대학 323개교 중 64%에 해당하는 207개교(일반대 120교, 전문대 87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반재정 지원을 받게 되고, 정원 감축 권고도 받지 않게 된다.

역량강화대학 66교(일반대학 30교, 전문대학 36교),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I) 9교(일반대 4교, 전문대 5교),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II) 11교(일반대 6교, 전문대 5교) 등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되고, 7~35%의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I·II) 소속 내년 신·편입생부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에 지원할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기존 재학생에 대한 지원은 졸업시까지 유지된다. 학생이나 교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은 지원이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의 활용 개요>

/자료=교육부

대학 구분	대학수			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		
	일반대학 (187교)	전문대학 (136교)	합계 (323교)		일반 재정 지원	특수목적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자율개선	120교	87교	207교 (64%)	제외	지원 (전체)	신청 가능	지원
역량강화	30교	36교	66교 (20%)	감축 권고 실시	지원* (일부)		지원
진단제외	27교	3교	30교 (9%)		제한	제한	일부 제한
재정지원 제한	I	4교	5교 (3%)				전면 제한
	II	6교	5교 (3%)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제6회 현대차그룹 대학 연극·뮤지컬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기대학교와 청운대학교 학생들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대차그룹 대학 연극·뮤지컬 페스티벌 성료

67개 대학서 학생 2500여 명 참가

'제6회 현대차그룹 대학 연극·뮤지컬 페스티벌'이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 문화비축기지에서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이병훈 현대차 이사, 정인석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배우 고창석, 박해수 및 행사 참가자 등 총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현대차그룹 대학 연극·뮤지컬 페스티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시작해 올해로 여섯번째를 맞이한 '현대차그룹 대학 연극·뮤지컬 페스티벌'은 현대차그룹과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10여개 문화예술단체가 후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 공연예술 경연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67개 대학 75개팀, 25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치열한 예선 경쟁을 펼쳤으며, 그 결과 총 13개팀(연극 6팀, 뮤지컬 7팀)이 최종 본선 무대에 올랐다.

/정연우 기자 yw964@

## 서울교육청 9급 합격자 올해도 '여풍당당'

합격자 560명 중 여성 372명 66%

서울시교육청이 3일 2018년도 일반직 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560명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합격자 중 여성이 372명(66%)이었고, 남성은 188명(34%)으로 여풍이 거셌다. 남성 합격자는 당초 159명이었으나, 한성이 30% 이상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교육행정직 27명과 사서직 2명 등 29명의 남성이 추가 합격했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직 465명(장애인 32명, 저소득층 7명), 전산 16명(장애인 2명, 저소득층 1명), 사서 17명(장애인 1명, 저소득층 1명), 보건 13명(장애인 1명), 공업·시설 25명, 경력경쟁임용 공업·시설 24명 등이다.

연령별로 26~30세 합격자가 241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최연소 연령 합격자는 올해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으로 18세(2001년생, 남)다. 최고령자는 40세(1968년생, 여)로 교육행정직에 합격했다.



서울시교육청. /메트로신문

올해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산하 기관과 각급 학교에 근무할 지방공무원 충원을 위해 지난 5월 19일 필기시험, 7월 7일 인성·적성검사, 8월 14일 면접시험을 치렀다.

조희연 교육감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을 이수한 뒤 올해 11월 1일부터 신규 임용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 신입 연봉 대기업 4060만원·중소 2730만원

잡코리아 대기업·중소 396곳 설문  
평균 1300만원 차... 격차 더 벌어져

올해 대기업의 대졸 신입직 초임 평균이 4000만원대에 진입했다. 이는 중소기업보다 1300만원이 많은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봉 격차가 전년보다 커졌다.

3일 잡코리아가 올해 대기업 154개사와 중소기업 242개사 등 총 396개사를 대상으로 4년제 대졸 신입직 초임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초임 평균은 4060만원으로 집계됐다. 초임에는 기본상여금은 포함됐고,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기업 신입 초임은 지난해 동일기업 평균(3950만원)과 비교해 2.6% 인상된 수준이다. 올해 중소기업 대졸 신입직 초임은 2730만원으로 전년(2690만원)보다



1.2% 상승해 대기업 인당수가 중소기업보다 컸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입직 평균연봉 격차는 올해 소폭 커졌다.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직 평

균연봉 격차는 1260만원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1330만 원으로 오히려 더 커졌다.

대기업 중에는 업종별로 평균연봉 격차가 있었다. 대기업 업종별로는 '식음료/외식' 업계를 제외한 전 업종의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이 4000만원을 넘어섰다.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대기업 업종은 '기계철강'으로 대졸 신입직 초임이 평균 46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금융' 업종이 평균 4500만 원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다음으로는 ▲건설업 평균 4380만 원 ▲석유화학/에너지업 평균 4160만 원 ▲자동차/운수업종 평균 4150만 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식음료/외식' 업종은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이 3560만 원으로 3000만원대에 머무르며 대기업 중에서는 신입직 초임수준이 가장 낮았다. /한용수 기자

## GS리테일, '일학습 병행제'로 인재 육성

재능대 유통물류과 학생 87명 근무

GS리테일이 학생들의 현장교육을 진행하며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앞장선다.

3일 GS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GS네트웍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인천센터로 시작으로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인천, 고양, 발안, 김포의 4개 물류센터에서 총 87명이 근무 중이다. '일학습 병행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선 취업 후진학 교육훈련제도'로, 전문 지원기업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동시에 제공한다.

GS네트웍스는 전문 지원기업으로 선정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을 완료했으며 인천에 위치한 재능대학교 손잡고 학위연계형 제도를 도입해 유통물류과 학생들의 현장업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GS네트웍스에서 근무하는 학습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아 일주일에 5일간 근무하고 급여를 받으면서 평일 중 하루는 재능대학에서 이론 중심의 교육을 별도로 수강해 2년 뒤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까지 가능하다. 또, GS네트웍스의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들은 별도의 등록금을 내지 않으며, 졸업 후 본인이 희망



GS네트웍스 고양센터에서 학습근로자로 근무 중인 인천재능대 학생들이 현장에서 상품피킹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GS리테일

시에는 4년제인 청운대학교와 재능대학교로 연계해 편입한 후 2년 더 훈련을 이어갈 수 있다. 단, 4년제 편입 시에는 등록금을 내야한다.

학습근로자는 매주 진행되는 GS네트웍스 자체 이론교육에서 상품관리 실무,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서는 재고관리와 상품입고 프로세스, 피킹 등의 실무를 직접 배우며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GS네트웍스는 학습근로자에게 체계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일부 지원받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유통물류 맞춤형 우수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대학가 소식

한국외대

국내 첫 조지아 언어 강의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민철)는 국제지역대학 소속 그리스·불가리아학과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국내 대학 최초로 '조지아(옛 그루지아) 언어 및 문화' 강의를 개설한다고 3일 밝혔다.

강좌에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재된 조지아 언어와 조지아어의 특별한 문자체와 아울러, 조지아의 문화와 역사 등에 관한 지식이 제공된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국내 여행객 제주도 관심 뚝"

제주도 여행에 대한 내국인들의 관심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는 컨슈머인사이드와 공동으로 수행한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조사'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에 대한 내국인들의 관심도는 줄곧 1위였으나 지난 8월 처음으로 강원도에 뒤지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제주도는 비싸다는 인식에 더해 불법체류자간의 살인사건, 난민 유입, 여성 사망사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 기자